

## TED 영상번역의 번역교육 활용에 관한 소고

안 미 영  
(세종대)

### 1. 서론

번역가의 역할과 지위가 이제 과거의 단순히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수동적 텍스트 생산이 아니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언어적 전환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이인규 2012). 또한 번역가는 문화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독립적 주체로서 보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Kiraly 2000).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은 번역가는 스스로 직관과 감성을 갖고 고유한 성격을 지니는 언어적 문화적 산물을 만들 수 있는 독자성과 자율성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따라서 번역 교육의 주안점도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과 정보의 암기위주의 수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번역수업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대신 최근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정신적 순발력(mental agility)와 기억력 증대 (memory reinforcement )를 키우는 번역교육방법에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Gonzales 2004). 번역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번역수업의 접근방법이 부상하면서 그 결과 번역 수업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번역이론의 틀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번역가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최근 번역 교육 과정에 ‘과제위주의 방법론’(task-oriented methodology)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도 이러한 번역가의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본다(Carreres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번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 후 둘째, 번역수업에 영상번역 텍스트 사용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셋째, 번역교육과 영상번역 텍스트 사용의 적절성의 연결고리로서 과제위주의 간접번역을 수업모델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번역수업에 영상 번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재생산하는 과제위주의 방법론을 도입하는 교안 설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번역수업이 학습자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자로서의 역동적 지성과 감성과 순발력을 지닌 번역가로서의 자질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번역가

1980년 카날과 스웨인(Canale and Swain)은 ‘소통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속성이 무엇이고 이것이 L2 습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기본요소로서 문법적 지식(grammatical competence)과 사회언어적인 지식(sociolinguistic competence) 그리고 전략적 지식(strategic competence)을 들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사회문화적(sociocultural)이고 대인적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여 불예측성과 창조성을 담고 있으며 담화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Canale and Swain 1980: 29; Kiraly 부분 재인용 2000: 178).

키랄리(Kiraly 2000)도 전문 번역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하고 번역가를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언어 학습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그레예(Grellet 1991b)는 번역은 내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번역교수의 스킬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번역가를 커뮤니케이터로 볼 때 번역가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켈리(Kelly 2005: 32-33)는 전문분야에 대한 주제 지식(basic knowledge of specialized field),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와 협상기술과 같은 대인관계 능력, 스스로를 평가하고 기획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전략적인 능력(strategic competence) 등을 번역가가 커뮤니케이터로서 가져야 할 기본 능력으로 지적했다.

## 2.2 번역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의 접목: 영상번역

영어 능력의 산출 매개체로서 수업활동에 다양한 매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김순영(2006)은 실무 위주의 번역교과를 제공하는 통번역대학원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교과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학생들에게 실무번역 전 단계의 준비를 해 주도록 이론의 틀을 사용한 번역 텍스트의 분석을 번역교과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향후 학습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장르와 유형을 다양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론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분석을 도입할 필요성과 더불어, 텍스트 외적인 번역방법을 고찰하기도 한다.

자율성이라는 말은 자유와 규율을 다 포함하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상번역이 문학번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지닌다고 할 때 그것은 영상번역이라는 시간제약과 청자위주의 가독성을 우선순위를 두는 목적과 기능을 위해 번역가 스스로의 감성과 직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영상번역도 도착어 텍스트가 갖는 원작과의 ‘텍스트 간 함치성’(intertextual coherence)을 번역 기본 규칙의 하나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Munday 2001: 106-108). 이와 같이 원작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함치성을 지녀야 하는 규율에 의해 번역가의 자율성이 제한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막번역에서 번역가의 자유는 일반 문학 번역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넓다고 본다(박찬순 2005 p167).

전달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은 영상 자막에서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TV나 비디오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한 화면에 12자에서 14자씩 두 줄로 띄운다. 어느 매체든 간에 영화 자막은 글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 대사가 계속되는 동안 관객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자수로 압축해서 번역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대사를 목표언어와 문화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짧게 뭉뚱그리고, 삭제, 축소, 변경시키고 봉합해야 한다. 그만큼 가능한 한 짧은 대사 속에 핵심이 되는 내용만 추려 담아야 한다. 결국, 단절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번역자의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대사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은 자막이라고 할 수 있다(박찬순 2005 p114). 즉, 좋은 자막 번역자라면 제한된 화면 안에 가장 경제적인 글자 수로 원작에 충실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결국 수용 문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막 번역이지만 번역자는 원본의 원래 의미를 최대한으로 지켜내도록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국 문화의 낯설음을 존중해서 이국적인 향취가 살아있도록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자막번역이라는 텍스트상의 속성을 바라볼 때 번역수업에 미디어 자막번역물의 텍스트를 번역수업에 사용하는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다. 번역수업이 화자의 발화 내용을 목표텍스트의 역동적인 등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적인 순발력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위주의 감성과 직관과 정신이 총체적으로 개입된 역동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번역수업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번역가의 감성과 지성과 직관을 상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자막번역물의 텍스트의 상대적인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다.

### 2.3 과제위주 수업활동 도입

영어교육의 매체로서 한글 자막 처리된 영상자료(이하 ‘영상번역’으로 용어를 통일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 학습자의 영어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영어산출능력(말하기, 쓰기, 어휘)의 향상 효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진실 2011). 반면, 인터넷 기반의 영어 학습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영어회화나 작문과 같이 발화기술 중심의 강의에서는 사이버강의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회화나 작문 과목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한데 사이버 강의는 상호작용이 힘들다는 관념 때문에 기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업 시간 내에 즉각적인 교수자의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영어회화와 작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업내 즉각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오히려 학생의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학생 자신의 지적인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번역교육에 이러한 영상번역 텍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학생의 정신적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어 학습에 적용되는 과제위주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Ellis 2003 and Nunan 2004). 과제위주의 수업활동은 아직은 완전히 정착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언어 교수자들은 이 방법론에 익숙하고 수업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수업에 이러한 과제위주의 활동을 도입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알리슨 비비(Beeby 1996)등이 번역수업에 과제활동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과제중심의 수업을 제안한 학자는 언어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개의 과제위주의 교안을 설계한 곤잘레스 데이비스(Gonzalez 2004)이다. 곤잘레스는 번역수업에 과제위주 활동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문법 위주의 번역 교수 방법 대신에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을 사용해서 외국어 수업에 사용하는 나라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1990년대 이래로 ‘학습자 자율성’ 혹은 ‘자신감’ ‘또래 학습(peer work)’, ‘의사결정’,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에 대한 현상에 관심을 갖는 학습자 위주의 수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면서 ‘이 모든 현상이 분명 번역 교육에 적합하다’(Gonzalez Davies 2004: 3, p11)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곤잘레스는 이러한 과제위주의 접근법을 논하면서 언어 학습과 번역가 학습 사이에 다른 학자들에 비해 그렇게 분명한 경계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곤잘레스는 자신이 쓴 책을 볼 목표 대상이 번역가 양성 교육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면서 ‘번역수업활동이 커뮤니케이션 학문과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교사들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곤잘레스는 과제활동(task)의 정의를 ‘그 활동이 언어학적이든, 사전적이든, 언어의 전환기술이든 아니면 전문적 번역기술이든지, 구체적이고 짧은 시간에 하는 연습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지식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고 기술했다(2004: 22). 또한 과제활동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최종 산출물을 향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과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과제활동이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경로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노우-하우’(know how)와 선언적인 ‘노우-왓’(know what) 지식이 과제활동을 통해 연습하고 탐구하는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Gonzalez Davies 2004: 23). 엘리스(Ellis 2003)는 곤잘레스가 내린 수업활동 과제(task)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혀서 ‘과제(task)는 학습자가 언어의 실용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의도한 대로 정확하고 적절한 콘텐츠가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산출물을 달성해야 하는 수업활동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켄 로빈슨교수(Robinson, 2006)는 TED 강연에서 한 연설을 통해 ‘지식은 다양하고(diverse) 역동적이고(dynamic) 차별화되는 것이며(distinct) 서로 다른 학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www.ted.com 사이트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다루며 문화와 문화 간에 중재자로서 문화 간 소통을 하는 번역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번역수업도 학생들 스스로의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다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자기 지식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번역방법을 고찰하는 텍스트는 주로 문학이나 영화 혹은 문화적 지시체였던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영상번역물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 세계 지성인들의 공감 글로벌 사이트인 TED의 자막 번역 텍스트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교과에 사용하여, 이론적 기반을 둔 분석을 하는 수업 방법을 진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연설문 자막을 사용한 번역수업설계 방법

본 연구는 TED<sup>1)</sup> 인터넷 글로벌 포럼 사이트에 오른 연설문 중에서 세 연설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TED 사이트에 올라간 연설문의 대부분은 89개 언어로 번역되어 자막으로 올라와 있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 강연 비디오는 2012년 7월28일자로 9,952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 결과 3만67개의 강연이 무료로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TED 연사들은 학계, 경제, 문화, 연예, 기술, 예술, 기술, 연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춘 의견 선도자들로서 자신의 경험을 18분 정도의 연설문으로 압축하여 전달한다. 수업설계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영상물 장르 중에서 연설문 장르를 번역학습 자료로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번역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려는 목표와 세계인의 지식공유 사이트인 TED의 연설문 장르를 번역교육의 텍스트로 선정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일반 영상물 번역 텍스트와 비교하여 TED라는 특정 미디어의 연설문 장르를 번역수업의 텍스트로 사용하였을 때 차별화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셋째, TED 연설문의 한국어 자막을 번역수업에 분석대상 텍스트로 도입할 때 과제 위주의 수업활동모델(task-oriented class)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때 수업활동의 과제요소(task components)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 요소 중에 정신적 순발력을 키우는 번역수업의 목표와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함양하는 두 개의 목표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론으로 과제중심 수업활동 모델을 번역교육의 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1)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으로 1984년에 창립된 이후 1990년부터 매년 강연회를 미국의 롱비치와 팜 스프링스와 영국의 에딘버그에서 개최하고 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TED 강연회가 열리면 교육, 환경, 기술, 의료, 인권, 오락, 스포츠, 음악, 코미디, 게임 등의 전문가들이 연설을 한다. 이 중에서 피드백이 좋은 연설 동영상은 웹사이트에 올라가고 매달 동영상자료가 추가로 오른다. TED의 자막번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 세계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40개 언어로 자막번역을 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자막번역을 하고 있다. (출처: [www.ted.com](http://www.ted.com))

### 3.1 TED 연설문 장르를 선택한 이유

국적을 초월하여 누구나 상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는 것이 TED를 운영하는 재단이 밝히는 취지이다. 번역의 원칙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TT 독자에게 원본의 메시지 또는 의미를 전달하는 원칙을 수행하되, 충실하게 원작과 역동적 등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역동적 등가 접근법의 목적은 원천텍스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며 메시지란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미, 즉 저자가 독자가 이해하고 인지하기를 바라는 느낌과 개념이다. 나이다와 테이버에 따르면 번역가는 원천텍스트 독자의 배경과 목표텍스트 독자의 배경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해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번역해야 한다(Nida & Taber 1969: 205). 이때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 차이에 벌어질수록 원천텍스트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루어야 하는 역동적 등가는 성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또한 역동적 등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맥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정인희 2007: 50).

이런 맥락에서 볼 때 TED 연설문의 경우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되 연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과 ‘감성’을 지닌 전 세계의 관객을 타깃으로 한다(www.ted.com 사이트 참조). 번역가의 역할은 두 문화 간 수용자 반응의 등가 정도를 높아지도록 해야 하는데, TED 연설문의 경우는 두 문화 간 수용자의 문화적 차이보다는 관객이 갖고 있는 ‘해당 전문지식’에 대한 지성과 감성의 공감도의 수준이 더 큰 요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번역가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역동적 등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려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대신 해당 전문지식에 대한 지성과 감성과 직관을 사용하는 정신적 순발력을 키우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둘째, 키랄리(Kiraly 2000)와 그레예(Grellet 1991b)가 지적했듯이 전문적 번역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번역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사용하여 번역 스킬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이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TED 웹사이트를 보면 연사들은 대부분 각자 있는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전문 지식을 갖춘 첨단 지식인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이기도 한다. 스스로 가진 지식을

18분이라는 시간에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번역수업에 도입이 된다면 학생들이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셋째, TED 자막 번역은 전문 번역가가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물질적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TED는 웹사이트에 번역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로 되도록 ‘일상적이고 현대적이고 세계적 언어’(informal, modern and global language)를 사용하되 연사의 ‘개성과 캐릭터’(personal trait & character)를 반영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TED 번역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번역과 앞으로 직업으로 번역가가 되기를 바라는 전문번역가 사이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TED 자막 번역 텍스트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안이 되는 번역 텍스트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번역수업에서 키워야 한다고 본다.

### 3.2 연설문 장르 대 일반 영상 번역: 텍스트 분석 대상 비교

TED 영상은 다른 일반적인 영상 미디어와 비교하면 시각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청각적으로는 연사가 내놓는 다양한 은유와 시공을 넘나드는 이야기가 녹아있는 감성과 지성과 열정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은 연사의 강연을 듣는 동안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풍부하고 역동적인 지식의 잔치마당을 따라가는 번역가 또한 연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적인 지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상황적인 맥락을 짚어내며 따라가는 감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연사의 지성과 감성을 한국 관객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상번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관객에게 원작의 뜻이 순간적으로 잘 전달되게 하면서도 미적인 감흥을 주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한다. 즉, 영상번역은 효과적인 전달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박찬순 2005: 113). TED의 경우도 이러한 자막 번역의 즉시성과 미적인 감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화 자막 번역일 경우, 올바른 뜻 전달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사가 품고 있는 뉘앙스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재미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주로 영상의 즉시성과 미적인 감흥을 통해 ‘재미’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려면, TED의 자막번역 작업의 경우도 이러한 자막번역의 즉시성과 미적인 감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TED 자막 번역을 하는 방법에는 일반 영상 관객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TED를 운영하는 재단이 밝히는 모토는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이다. TED의 자막 번역의 경우 일반 영상물의 자막 번역의 방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사와 공유할 수 있는 지적인 활력과 감성적인 역동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TED 웹사이트의 번역 가이드라인 참조). 번역가는 연사와 관객 간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TED의 한글자막을 갖고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역의 간접경험을 하는 수업의 경우도 학생들이 세계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들의 지성에 호소하고, 감성적으로 공유하는 지적인 활력소가 되는 메시지를 번역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 수업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자막이라고 하면, 첫째로 알맞은 글자 수, 둘째는 물처럼 잘 흘러가는 대사의 흐름, 셋째 읽기 쉽게 정리된 스파팅<sup>2)</sup> 그리고 넷째로 짧은 자막 속에 담긴 심미적인 대사 등이 번역의 핵심요소라고 한다(박찬순, 2005 p115). 이러한 일반적인 영상 번역의 원칙을 기본으로 볼 때 전문 영상 번역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한 TED의 한글 자막 번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는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극적인 갈등구조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영화 매체의 속성과 비교해서, 세계 지성인들을 관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TED라는 글로벌 포럼에 서서 전한 메시지를 번역할 때, 번역가가 필요로 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또한, 번역이론을 근거로 해서 TED의 한글 자막 번역을 읽으며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수업활동을 설계한다.

2) 한 화면에 들어가도록 대사를 끊는 것을 스파팅이라고 한다. 영화제에서는 컴퓨터로 스파팅 리스트를 만들어 대사마다 번호를 매겨놓은 Q타이틀을 번역자에게 주기 때문에 스파팅이 필요 없지만 개봉판이나 TV, 비디오 번역에는 번역자가 스파팅을 해야 한다.

### 3.3 연설문 장르 영상번역의 차별화

TED 연설문은 주로 사회, 문화, 음악, 미술, 연극, 예술, 인문과학, 과학, 환경, 기술 등 광범위한 문제를 테마로 삼고 설득, 정보 전달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공유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TED 자막 번역에서는 진실을 쉽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질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번역가가 그 분야에 관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찾고 탐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번역자는 지적인 문장력을 키울 수 있다. 번역가가 연사에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풍부한 지식과 유려한 문장력이 필요하다라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실제로 근접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적어도 이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TED 연설은 영화와 달라서 어느 의미에서는 번역가의 문장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되기 때문에 번역가의 지적 수준이나 문장력이 떨어지면 오역이나 부적합한 어휘 등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모르는 분야는 탐구해서 언제나 신뢰감을 주는 번역자가 되어야 한다. TED 연설은 정보를 주는 기능이 중요하므로 픽션처럼 생각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소홀하게 다루다간 오역을 하기 쉽다. 연대나 인명 등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늘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TED 연사의 말하는 속도가 보통 통역수업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의 속도보다 두세 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빨리 말하는 연사의 대사를 화면에 맞추어 자막이 뜨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단절감이 없어 자연스럽게 물처럼 흘러가는 번역을 하려면 연사가 전하고자 하는 건포도에 해당되는 핵심단어(key words)를 미리 잡아 놓은 후 연사가 주로 사용하는 상황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배경을 미리 머릿속에 정리한 후 번역을 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다.

연설 제목 & 주제	주제와 연결된 표현 및 단어
Gaming can make a better world www.ted.com/talks/lang/en/jane_mcgonigal_gaming_can_make_a_better_world.html 게임 디자이너인 제인 맥고니갈은 게임을 하면	the epic win moment (웅대한 미션을 수행하기 직전의 긴급하고 스티븐킹의 촌철살인의 순간), the 10,000-hour rule (일 만 시간의 법칙), urgent optimism (낙관적 긴박감: 문제를 즉시

<p>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웅대한 사명을 이루어 내려는 긴박한 낙관론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행복한 축복감을 사용해서 현실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설이다.</p>	<p>풀려고 하는 욕망과 웅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믿는 낙관주의), blissful productivity (계입같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생산성), ancient dice made out of sheep's knuckles (2,500년 전 양의 관절뼈로 만든 고대의 주사위)</p>
<p>Power of vulnerability  <a href="http://www.ted.com/talks/lang/en/brene_brown_on_vulnerability.html">http://www.ted.com/talks/lang/en/brene_brown_on_vulnerability.html</a>                  Filmed June 2010. Posted Dec 2010                  clicked views 5,463,630 as of July 27, 2012                  사회복지 연구자인 브렌 연사는 인간 소통능력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런 연합함으로 스스로 존재의 절대가치를 깨달아간다는 것. 상처받는 약함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기쁨과 소속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p>	<p>‘magic pixie (마법의 요정)’ ‘That was my mantra’(내 천직이었죠), connection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연대감, 소속감, 소통을 통한 자기 존재감), ‘Shame is fear of disconnection’(수치심은 단절에 대한 공포심이다), ‘whole-hearted people’(자신의 전인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 ‘vulnerability is the birthplace of joy, of creativity, of belonging, of love’(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기쁨, 창의성, 소속감 그리고 사랑이 생긴다)</p>
<p>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a href="http://www.ted.com/talks/lang/en/simon_sinek_how_great_leaders_inspire_action.html">http://www.ted.com/talks/lang/en/simon_sinek_how_great_leaders_inspire_action.html</a> 사이먼 시넥 연사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의 모델로서 황금의 두뇌 고리를 소개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상대방과의 가치 공유이다. 즉,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일에 대한 가치에 확신을 서게 하는 것이 영감을 주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p>	<p>‘The golden circles’ (황금의 두뇌 고리, 인간의 두뇌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 부위로 나뉘어져 있다. 즉 Why-How-What 질문에 응답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Why 질문에 해당되는 두뇌부분을 움직여야 설득할 수 있다), ‘the law of diffusion of innovation’(혁신 전파 법칙), innovator(혁신가), early majority(초기 대다수), late majority(느린 대다수), laggard (느린 수용자)</p>

#### 4. TED 연설문 자막을 사용한 번역수업 설계

##### 4.1 번역이론의 제시

해석학적 번역 이론가들은 의미(sense)=뜻(meaning) + 문맥(context)이라는 등식을 내놓았다. 이만큼, 대사를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상황적인 맥락으

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원대사와 관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워주는 일이 번역자의 역할인 것이다. 특히 화면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자막번역의 경우, 의미적으로 상관없는 대사를 삭제하고 때로는 관객들이 연사와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덧붙여주는 것이 친절한 번역이 될 수 있다.

TED 연사는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임을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개인 경험을 관객과 나누려면 아마도 하루를 잡고 다 강연을 한다 해도 그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TED 연설은 보통 10분-20분으로 길이가 제한되어 있다. 이 짧은 시간에 자신의 메시지를 집약해서 전달하다 보니 연사는 자신의 이야기에 관련된 모든 상황적 맥락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다. 되도록 맥락을 제거하고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다 보니 메시지의 논리를 차분하게 따라가기에 웬만한 지성을 갖춘 관객이라도 힘들 수 있다. 그만큼 TED 대사는 생략되고 절제되고 압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가가 영상자막을 연사의 말을 단어 대 단어로 따라 간다면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연사가 생략하는 상황적인 맥락을 일일이 자막 번역에 부연하기에는 화면과 시간상의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번역가는 원문의 적합성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수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뜻풀이해서 번안해주는 소통적인 측면을 따라가야 할지, 이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어느 적합한 지점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TED 영상매체의 번역작업을 둘러싼 양면성 때문에 번역가는 적합성과 용인성사이의 양축을 오가면서 동시에 연사의 강연을 둘러싼 문화적인 총체적인 맥락을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번역작업은 역동적인 지성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며 번역이론이 이러한 역동적인 작업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본다. 번역수업에 연설문 장르의 자막번역을 보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간접번역에 들어서기 전에 수업시간에 제시할 수 있는 번역이론의 예를 들어본다.

첫째, 번역가의 자율성에 의해 자막번역 텍스트에 가해지는 변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크게 네 가지 범주, 즉 텍스트의 축소, 확장, 단순화 그리고 의역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인규 2012). TED 연설문의 경우도 이 네 가지 이론의 범주 내에서 번역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위에 열거한 TED 연설문의 특성을 감안 하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원문의 긴 표현을 간단히 압축하여 번역하는 ‘축소’와 ‘단순화’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즉 의미의 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단어와 구절을 생략해서 축소하기도 하고 원문의 복잡하고 긴 문장을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나눠서 변형시키기 ‘단순화’하는 기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번역은 기본적으로 등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등가 논의에서 자주 언급하는 학자 나이다(Nida 1964)가 제시한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를 설명하고, 연설문 자막 텍스트를 번역할 경우 정확성(accuracy)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효과의 등가성’(the principle of equivalent effect)을 달성하는 역동적 등가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한다(오미형 2012).

셋째, 연설문장르를 번역수업의 텍스트로 선정한 것을 감안하여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설득적 텍스트에서 간투어 혹은 헤지(hedge) 표현이 중요한 소통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헤지 표현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헤지 표현은 자기주장에 대한 반대를 줄이기 위해 ‘체면위험의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연사의 명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의사소통상황에서 하나의 공손전략으로도 기능하기도 한다(신진원 2012).

이와 같이 학부의 번역수업에 연설문 장르의 영상번역물 텍스트를 분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 후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자막번역 텍스트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수업방법을 도입한다면, 이것이 번역이론의 틀 안에서 학습자가 연사와 관객의 중간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서 지성과 감성의 공감대를 넓혀갈수 있는 정신적 순발력을 키워나가는 번역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 4.2 수업활동요소 및 절차의 정의

번역수업의 진행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수업시간에 TED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한 자막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보통 두 시간 강의라면 A4용지 한 장 정도의 한글 자막이면 TED 강사가 3분내지 5분 정도 연설하는 분량인데

TED 연설문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한두 장으로 제한한다. 한 조는 보통 두 명 혹은 세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수업시간마다 각각의 번역본에 대해 조별로 분석을 한 후 분석 결과를 조별로 발표한다. 분석을 하기 전에 관련된 번역이론을 미리 설명하여 분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번역 이론의 틀 속에 자막 번역을 놓고 번역이론에 근거하여 잘된 번역은 왜 잘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번역은 왜 잘못 되었는지 분석의 근거를 제시하게 한다. 근거의 제시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은 번역이론에 맞는 더 적합한 번역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간접경험은 학생들이 직접 텍스트를 갖고 번역을 하기 전에 전문번역가가 아닌 자원봉사자가 한 번역을 통해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번역이론의 잣대로 재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더 좋은 번역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직접 번역하는 경험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혹은 예비단계로서의 번역수업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누난(Nunan 2004:41)의 수업활동 모형을 참고로 하여 연설문장리의 자막번역 텍스트를 이용한 간접 번역 수업의 교안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제 요소(task components)를 사용하여 교안을 작성하였다

(1) 목표(Goal): 학습자 중심의 수업활동과 커리큘럼의 목표가 서로 상호 연결되도록 수업 활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수업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인지적인 면에서 수업전과 수업 후에 학습자들이 보여줄 의도된 차이를 일반적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번역수업의 결과 학습자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기술할 수도 있다.

(2) 수업자료(Input): 학습자가 수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인데 오디오, 비디오 혹은 쓰인 자료일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수업의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표기된 연설문 자막번역 텍스트의 출력물이 필요하다. 수업이 시작할 때 TED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해당 연설 동영상상을 함께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거나 혹은 미리 주제어들과 연관된 용어들을 미리 정리해서 강의할 수도 있다.

(3) 절차(Procedures): 강사와 학습자가 서로 상호반응하며 실제로 수행하게 될 수업활동과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할지 세부적으로 묘사한다.

(4) 환경(Setting): 수업을 진행하는 환경을 제시한다. AV 시설이 갖추어진 교실로서 20-30명의 학생이 적합한 사이즈로 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학생이 개인용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랩탑 컴퓨터를 각자 준비할 수도 있다.

<과제위주의 번역수업 절차>

(1) 목표(Goal):

- o 번역이론을 배우고 배운 이론을 간접번역을 통해 실제로 적용한다.
- o 번역이 단순한 의미의 전달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일부이라는 인식을 키운다.
- o 번역을 통해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적인 호기심과 정신적 순발력을 키운다.

(2) 수업 자료(Input)

TED 강연회에서 발표한 연설 문중에서 번역수업에 사용할 텍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은 1) 공감: 수백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연설 동영상이라면 그만큼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2) 소통능력: 연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 본다. 그리고 3) 연설문 주제와 학생들의 전공 및 흥미분야 사이에 연결성이 있는지 본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예가 지금까지 TED 웹 사이트에 올라간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켄 로빈슨 교수의 연설동영상이다. ‘학교가 창조력을 말살한다’(Schools kill creativity)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발췌한 한국어자막과 영어자막을 나란히 보여주는 출력물을 사용한다. [The most viewed speech: 11, 371, 472 clicks as of July 24, 2012].

## (3) 환경(Setting)

두 명 혹은 세 명씩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전체 강의를 하기도 한다. 보통 2시간 수업시간에 20-3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AV시설이 갖추어진 교실이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모든 학생이 각자 랩탑 무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 (4) 수업단계별 절차(Procedures)

- a. 강사가 관련 번역이론을 설명한다.
- b.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페이지의 국어 자막을 10분 동안 보면서, TED 자원봉사자가 한 자막 번역을 읽는다.
- c. 이미 들은 번역이론을 근거로 하여 자막 번역 텍스트가 잘 된 번역인지 생각하고 팀원끼리 서로 의견을 나눈다.
- d. 잘 된 번역이라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잘 된 근거가 무엇인가? 혹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e. 이론적 근거에 따라 내가 이 번역을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까?
- f. 조별활동을 통해 자막번역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번역 대안을 제시한다.
- g. 강사는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피드백을 보이고 가능하면 번역 대안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

## 4.3 TED 연설문 자막 분석의 예

<예시1>

ST: You can see the blood run from their face. They're like, "Oh my God," you know, "Why me? My one night out all week."

TT1: 상대방의 얼굴이 바로 창백해지는 게 보여요 속으로 "젠장, 왜 하필 나야? 일주일에 겨우 하루 놀러온 건데……." (웃음)

TT2: 그러면 표정에 핏기가 가셔요 '답소사, 하필 나야?'

설명: 감탄사를 어느 정도로 비속화시킬 수 있을까. 대명사의 번역.

첫째, 이미 관객은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교수가 파티에 가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는 정보’을 교수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수의 강연을 듣는 학생도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구태여 ‘상대방의 얼굴’이라는 주어를 명시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자막번역의 글자 수를 되도록 화면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줄여야 한다. 둘째, ‘Oh my God’를 ‘젠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여성이었다면 아마 ‘어머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면 ‘헐’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여성인지 젊은이인지 혹은 연령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남성들이 많이 쓰는 감탄사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중립적인 감탄사 ‘맙소사’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일주일에 하루! 뒤에 ‘놀러온건데’를 풀어서 첨가했다. 연사가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어서 한국 관객이 공감을 하도록 도왔다

<예시2>

ST: In fact, we moved from Stratford to Los Angeles. So you can imagine what a seamless transition that was.(Laughter)

TT1: 우린 스트랫포드에서 LA로 이사를 했었죠. 얼마나 매끄러운 과정이었는지 모르실 겁니다.(웃음)

TT2: 셰익스피어 고향도시에서 할리우드 도시 LA로 이사 왔어요 문화쇼크이었지요

설명: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번역이 보인다.

왜 스트랫포드(Stratford-on-avon)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간 것이 매끄러운 과정이라는 것일까? 왜 연사의 이 말에 TED 관객들은 웃은 것일까? 이 자막번역을 보면 한국 관객이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도시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한국 관객도 TED 관객과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미국 멤피스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먹여 살린다면, 영국의 스트랫포드 온 에이번(Stratford-on-Avon)은 셰익스피어가 먹여 살린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스트랫포드 온 에이번은 영문학의 성지(British literary shrine)로 비유될

정도가. 반면 미국 L. A.는 소위 ‘교만의 상징’(Best place for deadly sins: Pride)으로 비유될 정도로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명품을 파는 소비 향락과 할리우드영화의 산실이다. 비버리 힐의 몇 백억 원 가치의 부자들의 맨션과 화려한 명품의 쇼윈도를 기웃거리는 많은 관광객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서로 성경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갔다는 비유가 생각날 정도다. 그러니 로빈슨 교수가 이 문학의 산실에서 상업주의의 첨봉인 도시로 옮겨갔을 때 그 문화 충격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화적인 맥락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세익스피어 고향에서 할리우드 도시 LA로 이사했어요. 문화 쇼크였지요.’

<예시3>

ST: Right now we spend three billion hours a week playing online games. Some of you might be thinking, ‘That’s a lot of time to spend playing games. Maybe too much time a), considering how many urgent problems we have to solve in the real world.

TT1: 현재 우리는 일주일에 30억 시간을 온라인 게임에 소비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게임에 써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인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실제 세상에서 풀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TT2: 게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0억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게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버린다고?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했는데 말이야.”라고 말이죠.

설명: 간결한 압축이 필요하다 문맥상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의미와 손상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면 간결한 압축번역이 적절하다.

우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역동적 등가를 발견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원문이다. 대신, 의미의 손상이 없는 전제에서 간결한 압축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가 한 번역을 보면 문맥상 그 의미가 이미 명확하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다소 풀어서 옮긴 경우이다. 이럴 경우 밑줄 친 부분 a)를 생략한다. 또한 밑줄 친 문장 두 개를 굳이 따로 번역하지 않아도 한 문장으로 묶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원문에 나오는 ‘some of you’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간투어(Hedge)로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반화의 방지’라는 기능을 가진 간투어이기 때문에 구태여 ‘몇몇 사람들’이라고 직역을 하면 어색하게 된다. 대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시4>

ST: How do you explain when things don't go as we assume? Or better,  
how do you explain when others are able to achieve things that  
seem to defy all of the assumptions.

TT1: 우리가 가정한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가정에 위배돼 보이는 것들  
을 다른 이가 성취할 때 말이지요.

TT2: 왜 우리가 생각한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도 해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설명: 자막번역의 글자 수 제약을 감안하여 의미에 충실하되 원문의 중복  
되는 내용이 있다면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변형시  
킬 수 있다.

연사가 말하는 속도와 맞추어 자막을 함께 읽어내야 하는 기술적인 제약을 감안하면 이 구절은 되도록 한국어 자막의 길이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즉, 연사가 말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자막 번역은 더 압축되어야 한다. 이 문장의 경우도 TT1에서 줄친 부분은 생략해서 압축해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defy all of the assumption’을 직역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자막에 담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보았다.

<예시5>

ST: About three and a half years ago I made a discovery. And this  
discovery profoundly changed my view on how I thought the world

worked, and it even profoundly changed the way in which I operate in it.

TT1: 대략 3년 반 전에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저의 시각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TT2: 3년 반쯤 이것을 발견한 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달라졌어요.

설명: 연사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막 수에 대한 기술적 제한이 더 커지는 만큼 더 짧게 압축할 필요가 있다.

문맥상 그 의미가 이미 명확하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번역가가 다소 장황하게 그대로 직역을 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시각’은 ‘세계관’으로 압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결론

본 논문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번역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번역수업에 연설문 장르의 영상번역물을 과제 중심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학습자 위주의 번역 교육 방법은 번역가에 대한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번역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번역가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스스로 감성과 지성과 직관의 역량을 사용해서 독창성과 자율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 번역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과제 중심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한편, 영상번역 텍스트를 사용하여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번역 작업이 역동적인 지성과 감성의 공유의 총합체라는 인식을 키우기 위한 번역교육 방법으로 제시한다.

수업 설계 요소로서는 번역교육과 영상 번역물의 사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수업 목표(goal)를 세우고, 학생들이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번역이론의 틀(input)을 제시하며 과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procedures)을 분명히 세분화하여 정의를 내린다. 또한, TED가 세계인이 공유하는 공감 사이트인 만큼 정확하고 지성적인 어휘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를 제시하고, 이러한 연설문 장르의 영상번역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간접경험을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번역을 하는 실무번역을 하기 전에 과도기에 사용할 번역교육의 대안으로서 제시하며 그 목적은 학생들이 번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고 번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수업 설계안이다.

본 논문은 연설문 장르의 영상물을 텍스트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앞으로 번역수업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영상물을 도입함으로써 번역수업이 역동적인 지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이 자리를 굳힐 수 있는 번역수업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논문은 실제 수업을 한 경험을 토대한 실증적 논문이 아니라 기술적 논문인 한계점을 지닌다. 앞으로 이에 관한 실증적 논문이 나와서 좀 더 체계화되고 정량적인 자료로 뒷받침이 되는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TED 연설문을 분석대상 텍스트로 사용하여 수업설계와 이론을 틀로 하는 분석과 평가에서 끝났지만 다음 논문에서는 TED 텍스트가 과연 학부생에게 난이도와 주제 분야의 흥미도면에서 적절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순영 (2008) 「국내 학부 번역교육과정에 대한 고찰-번역능력의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6(2): 5-21.
- 김태영, 김은주, 김혜영 (2011) 「온-오프라인 결합 교양영어 수강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유형과 변화」, 『현대영어교육』 12(1): 126-154
- 박찬순 (2005) 『그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신지선 (2008) 「번역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Translation Brief(번역 의뢰사항)의

-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6(1): 37-53
- 신진원 (2012) 「설득적 텍스트의 헤지 표현(hedging) 번역문제」, 『번역학연구』 13(2): 113-138.
- 오미형 (2012).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3(1): 59-67.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 이미경 (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2): 140-156.
- 이인규 (2012) 「아동문학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자율성」, 『번역학연구』 13(2): 185-203.
- 장애리 (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169-202.
- 정양수 (2010) 「CMC 기반의 상호작용적 영어작문 수업 모형 개발」, 『영어학연구』 16(2).
- 정인희 (2007)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영한 영상번역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수근 · 이정화 · 김주혜 (2008) 「온라인 영작문 강의에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 연구』 27: 19-39.
- 최진실, 박기성, 전지현(2011) 「영어 산출 능력에 대한 영상번역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어학』 11(2): 319-346
- Beeby, A. (1996) *Teaching Translation from Spanish: Worlds beyond word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Canale, M. and M. Swain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ardon, P.W. (2010) 'Using films to learn about the nature of cross-cultural stereotypes in intercultural business communication course',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150-162.
- Carreres, Angeles (2011)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insights from professional translator training',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39: 281-297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nzalez M.D. (2004) *Multiple Voice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Activities, tasks and project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7-225.
- Grellet, F. (1991). 'Vers une pedagogie communicative de la traduction', In *The Role of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 Malamah-Thomas, H. Blasch and P. Chaix, (eds) 85-93. Paris: Didier Erudition.
- Guardini, Paola (2010) 'Decision-making in subtitling', *Studies in Translatology*. 6(1): 91-112
- Kelm, Orlando (2011) 'Social Media: It's What Students Do',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505-517
- Kelly, D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A Guide to Reflective Practice*. Manchester, UK: St. Jerome.
- Kiraly, D. (1995).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Empowerment from Theory to Practice*. Manchester, UK: St. Jerome.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Theories and Appl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 Nida, E. A. and Taber C. R.(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Nunan, D. (2004) *Task-base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on, Douglas (1991) *The Translator's Turn*, London: The Johns Hopkin.

[Abstract]

**A study on applying TED subtitles  
to undergraduate translation course**

Ahn, Mi-Young  
(Sejong University)

Based on literature reviews regarding the role of translator as communicator, the paper proposes to bring media subtitle into translation pedagogy, with the use of task-based class activities as an interface between the translation pedagogy and communicative role of translator. After drawing on the researches regarding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ranslators, the author discusses the reasons why it believes the use of TED speech subtitles can be compatible with translation pedagogy's goal of strengthening the translator'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n, the author illustrates the application of a task-based class activities by framing the task into the class components that consist of goal, input, setting and procedural steps. In the final session, it presents the task-based sample translation class to illustrate the discussion.

▶ Key Words: media subtitle, translation pedagogy, communicative competence, task-based approach

158 번역학연구 ● 제13권 4호

안미영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amy1216@chol.com

관심분야: 번역교육, 통역교육, 미디어번역, 비즈니스영어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